

사 랑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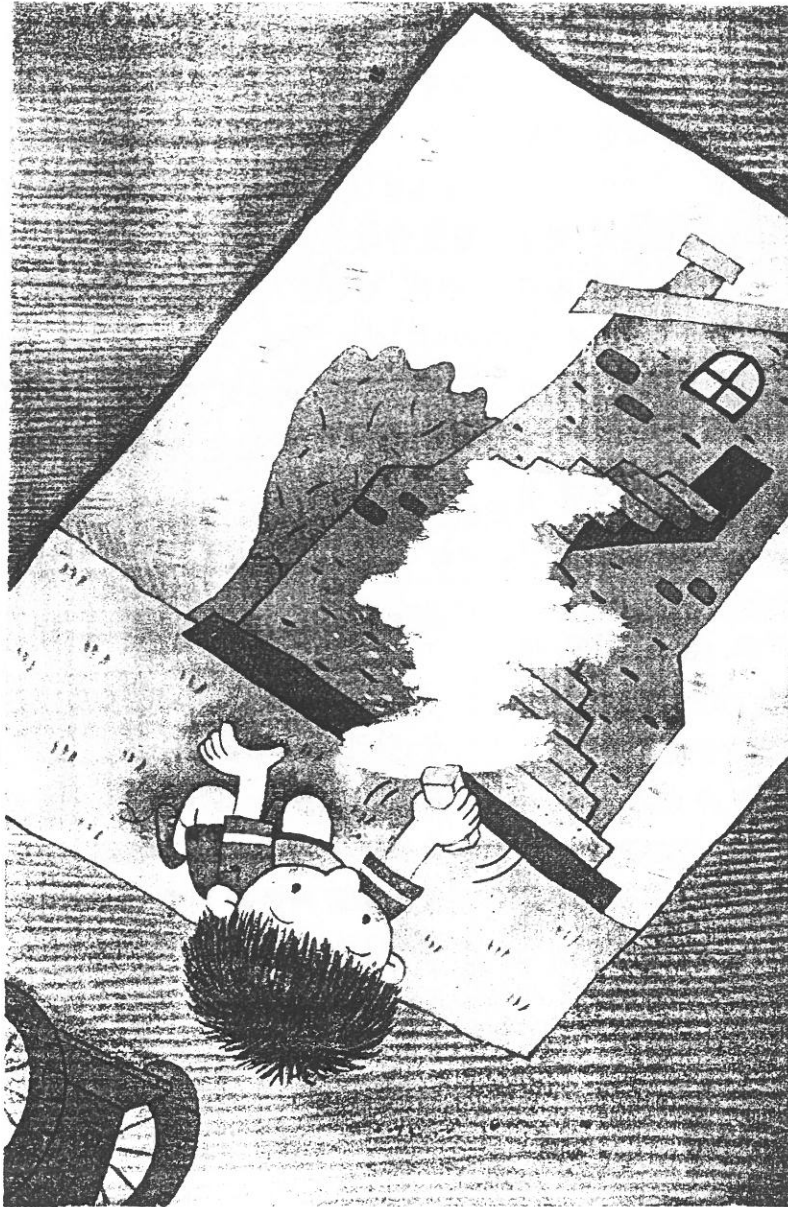
회원통신 제42호(98/6/18)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모두 어렵다는 시절
마음껏 뛰고 싶은
장애 아동의 꿈이
더욱 애뜻합니다.

계단도 지루개로 지을 수 있다면...

이제 감옥을 바꾸자!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조사 사업 새롭게 추진

3월부터 시작된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4개월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약 3천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조사지는 150여 건입니다. 사업 초기에 약 5백부 정도의 수거를 목표로 했으나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6일 천주교인권위와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8월 중순 경에 설문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다.

행형 설문조사 외화작업의 전단계로 현재 들어온 150여 통의 설문조사지에 대한 집계 작업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설문조사서 수거를 위해 전담자들을 마련, 발로 뛰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자는 사랑방에서는 엄주현, 유해정 씨가 맡기로 했으며 천주교인권위에서 1-2명 정도의 사람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감옥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할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단 행형부분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대한 광고는 <인권하루소식> 등 단체 정간물을 이용하기로 하고 한겨레 신문 등에는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9월초부터 이후에 들어온 설문조사서에 대한 추가분석 작업을 실시한다.

내부 보고서와 완성된 보고서와의 결과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

신력을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설문조사서를 수거하기 위해 8·15 특별사면 이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수거된 설문조사지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을 실시해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보고서에 특별 보고분야를 만들어 청송문제를 다루고, 부록 형태로 교도소와 관련한 소송제기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실을 계획입니다.

3. 9월 중순경에 보고서를 완성해 언론에 발표한다.

언론 발표는 (안기부의 대공수사 발표와 같이) 차트 등을 이용해 언론의 관심을 끌어 사회적인 이슈화 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형연구 작업에 함께 하실 분!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될 감옥 인권실태 설문조사 사업은 인권사각지대인 감옥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설문지 분석작업과 행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보고서를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자문위원 중 이 일에 함께 하실 뜻있는 분들을 연구팀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이라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까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741-5363(엄주현)

사 / 업 / 보 / 고

(98년 5월 셋째주부터 6월 둘째주까지)

불심검문 피해자 민사소송 추진

-24일 경찰청 항의집회-

5월초 주춤하던 불법적인 경찰의 불심검문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방 불심검문 캠페인 팀은 지난 16일 법률지원팀과 피해자, 캠페인 기획팀과 사랑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후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지원팀의 김도형, 도재형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피해 학생 6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본인들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 준비되는대로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심검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핸드북을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지원팀은 차병직, 윤기원, 정연순, 김도형, 도재형 변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캠페인팀은 오는 2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행사에서 다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이날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3일 국가인권기구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기구 설치가 가시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인권협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협은 지난 2일 민변에서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워크숍을 열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정도와 준비의 부족으로 원활한 토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권협은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다시 워크숍을 갖고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한중인 앰네스티 전문가의 발제도 듣고,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측이 법률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별도의 안을 작성,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입니다.

사랑방은 서대표가 주요 단체 대표들과 만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최은아 총무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협, 인권영화제 주최 논의

-국가보안법 사업 등 추진-

인권협은 지난 9일 집행위원회를 간사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고, 국가보안법 국제 캠페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가협, 민변, 사랑방의 협의 속에서 진행돼온 국제 캠페인과 관련하여 지원금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던 아태지역촉진모임(FT)에서 최근 2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이 지원금을 인권협 명의로 수령하고, 또한 앞으로 사업 계획인 대중캠페인, 국회 및 대정부 로비, 국제연대 사업 등에 이 지원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3개 단체가 추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상임대표의 문제는 민가협이 13일까지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상임대표가 결정되는 대로 7월초 인권협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사랑방이 제안한 제3회 인권영화제 주최문제에 대해서는 사랑방에서 공문을 발송한 직후 각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FT에서 제안한 제3차 아태지역 인권대회 서울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있는 사업이므로 각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체류인사 귀국 문제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맡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단체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엠네스티 방한 대표단과 인권협 집행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간사단체 사무실에서 만나고, 철거폭력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를 17일 오후 2시에 갖기로 하였으며, 8.15에 단행될 사면복권을 앞두고 인권협을 비롯한 관심있는 단체들간의 간담회를 오는 24일(수) 오후 3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갖고, 정보공유와 공동 사업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협은 의문사진상규명 캠페인에 인권협의 각 단체가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요망했습니다.

적준사법처리 대책위 구성기로

-16개 단체 참여 확인-

지난 17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 모인 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 집행책임자들은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결성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폭력행위 및 세금 포탈 등에 대한 법적인 고발, 폭력 피해사례 자료집 발간 및 여론작업, 대정부 촉구 사업, 국회 국정감사 대응 등의 사업을 통해 다원건설 책임자들을 응징함으로써 철거폭력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단은 참가의사를 밝힌 16개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로는 김승훈 신부님, 집행위원장으로 이덕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책임질 단체의 책임자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대책위원회 간사단체를 자임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랑방, 빈사목, 천도빈, 전국연합, 주거연합, 전철연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철연과 주거연합은 철거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는 참관단체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 5월 22일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용역.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영화제 김정아씨 뉴욕 출국

제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영화제 기획담당자인 김정아 씨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2주간의 일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씨는 뉴욕에서 인권영화에 대한 리스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독립영화 『태평천국의 문』(원제; 천안문)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사회에는 후원회원이 약 4백명 정도 참석하는 총 6백명 가량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문제, 현장조사부터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실천활동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97년 8월의 합의 이후 한국타이어 현장은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고, 현재의 IMF 체제를 이용해 더욱 악랄하게 현장 노동자와 해고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은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를 재건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사랑방과 노기연 등이 같이 이 사업을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98년 이후의 한국타이어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작업의 결과를 모아서 법적인 고소, 고발을 추진하고, 언론 홍보작업, 국제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을 사회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보법 학습 모임 활발하게 진행

국가보안법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랑방, 직장인 인권모임 틈새, 지식인연대 등의 회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은 지난 5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사랑방에서 국가보안법 학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학습을 통해 공통의 인식을 확보한 위에서 7월부터는 본래 하기로 한 조사작업과 교재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칭)안기부개혁연대회의는 최근 모임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안기부 사업은 현재는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주위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연합도 새롭게 실무자를 세우고 있는 형편으로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다시 안기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실 새 데이터베이스 완료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전부 옮겨졌습니다. 오

라클 프로그램으로 새로 짠 데이터베이스는 디자인도 훨씬 예뻐졌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또한, 풀 텍스트(full text)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고, 프린터가 수월해졌고, 인터넷에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만약 전용선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면 새로 디자인 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전용선 설치는 아직 요원합니다). 이를 위해 김광열 씨 등이 컴퓨터를 기증하시고, 직접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권교재 연속 출판 기획

인권교육실은 오는 8월까지 청소년 인권교재를 출간하는 데 이어 앞으로 장애인과 인권, 개발과 인권, 외국인과 인권, 여성과 인권, 노동자와 인권, 재판 이야기, 갇힌 자와 인권 등에 대한 50쪽 내외의 핸드북을 계속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층 공사 완료 멋진 회의실 마련

5층 사무실 공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5층 큰 방에는 책상 4개를 배치하여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작은 방은 민주법연 사무실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가장 멋진 공간이 된 가건물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사무공간과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에는 사무국장, 총무, 인권하루 소식, 기획사업팀이 배치되어 있고, 자료실에는 대표, 자료실 담당자, 자료실 보조 책상과 작업대를 배치하였습니다.

5층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졌으며, 이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사무실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

아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 참가

사랑방이 56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용·실업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이 2차 파업을 취소함에 따라 힘이 많이 빠져 있지만, 새롭게 위상을 설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엄중한 시국에 공동 대처한다는 인식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IMF희생자 위령제를 치르는 등의 집회를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 도원동 진상조사단 활동, 재벌개혁 감시센터 운영, IMF 재협상 촉구를 위한 행동프로그램 기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적인 사회·사회단체들을 통신공간에서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가 추진중입니다. (가칭) 진보네트워크 추진위원회에 사랑방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는 오는 6월말까지 추진위원을 모을 예정입니다.

□ 독일 이영숙씨 방문

전 재독양심수후원회장으로 그동안 사랑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영숙(45)씨가 지난 6월초 귀국하였고, 사랑방에 몇 차례 방문하여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지난 재분배 재단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성사시키기도 했던 이씨는 15일에는 늦게까지 실무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씨는 18일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 서준식 대표 진보적 인권운동 역설

지난 5월 29일 민변 10주년 기념 인권토론회에서 서준식 대표가 그동안 사랑방이 추구해왔던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서대표의 발제문 전문은 사랑방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AI대표단 방문

방한중인 앰네스티 한국대표단이 3명이 15일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행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앰네스티 대표단은 오는 23일에도 사랑방을 들러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는 9월 김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방한을 앞두고 새 정부 집권 후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등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오는 23일 인권협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토론을 가진 뒤 오는 26일경 출국할 예정입니다.

□ 버클리대 학생들 방문, 연수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한국학위원회(CKS)가 처음으로 추진한 KASEK(Korean America Student's Eyes on Korea) 프로그램 참가자 25명이 지난 6일 사랑방을 방문한 데 이어 5명의 참가자들은 8일부터 13일까지 사랑방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5월말에 들어와 통일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토론, 판문점 방문, 모란공원, 광주 망월동,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13일 서울대에서 보고식을 갖고 각자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이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사랑방 사업 설명,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 불심검문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3일에는 창경궁 소풍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제7회 참교육상 수상

지난 5월 28일 전교조 창립 기념 9주년 기념식에서 사랑방이 제7회 참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교조는 수상이유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교육 실

천에 앞장서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상에서는 묵직한 청동으로 만든 참교육상 상패가 수여되었고,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날 참교육상은 상지대 김찬국 총장님, 참교육학 부모회의 김영만 선생님이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 민변 제1회 인권논문상 장려상 수상

민변 1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제1회 인권논문상 장려상에 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제출한 『한국 인권교육의 현실과 과제』가 뽑혀서 29일 기념행사장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논문이 시간적으로 매우 쫓기는 상황에서 작성되어 논문의 형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상금은 50만원이었습니다.

□ 배경내씨 수습 채용

지난해 여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던 배경내 씨를 6월부터 수습자로 채용했습니다. 배씨는 27세, 미혼으로 연세대 교육학과 대학원 8월 졸업 예정이며, 논문은 고등학생인권을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연세대의 교육동아리 열음에서 교육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

동을 해오면서 인권교육실 사업에 함께 해왔습니다. 배씨는 3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쳐 오는 8월말 정식 상근자로 채용되게 됩니다.

□ '인사동' 대표 교체, 유해정 씨 새 대표
배경내 씨가 상근자로 채용됨에 따라 '인사동'(인권운동사랑방 자원봉사자 모임)에서는 유씨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동 대표로는 이영태, 유해정 씨가 공동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정씨는 숙대 사학과 재학중이며, 오는 8월 졸업 예정입니다. 현재 인사동에 결합해 있는 자원봉사자는 총 12명입니다(비출근 자원봉사자 제외). 인사동은 매주 회의를 갖고 업무를 점검하며, 격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실습, 서울대 법대 연수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실습을 나왔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98년 1학기 실습이 지난 2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실습생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사랑방에 벽시계를 기증했습니다.

한편, 숭실대 법대생 5명이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권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서울대 법대 학생들 15명이 연수를 다녀갈 계획입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후원회원께 <쇼아>를 드립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인권영화제를 후원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후원회원에게는 제2회 인권영화제의 대표작 <쇼아>(9시간 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를 드립니다. 검열을 피하면서 <쇼아>를 보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특별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의 준비금 마련을 위해서도 긴요합니다.

1. 특별후원회원 가입 방법; 10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특별후원회원 특전

▷ 9시간 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 <쇼아>(Tape 4개) 증정/ ▷ <쇼아> 자료집 증정/ ▷ 일반후원회원과 동일한 특전(후원회원소식지 우송, 상영장 우선입장, 영화제 해설책자 및 기념품 증정)

3. 문의: 김정아(☎ 02-741-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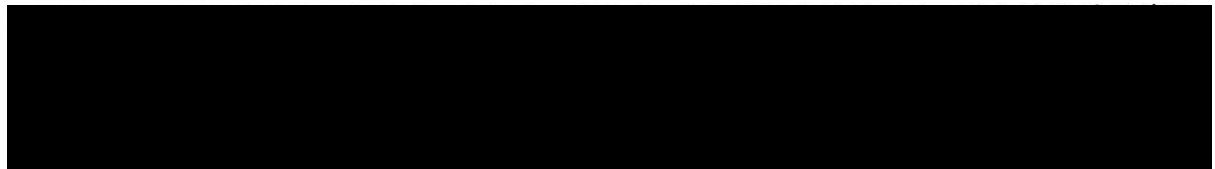
98년 5월 재정보고

(98년 5월 16일 - 6월 15일)

전기이월: +4,284,660원

수 입		지 출	
회비	1,617,700	활동비	3,960,000
구독료	2,404,800	발송비	704,220
사업수익	1,506,190	사무비품비	2,637,800
불심검문카드판매	2,451,600	사무실유지보수비	3,654,530
후원금	3,163,365	간행물구독료및자료구입	122,800
기타	5,572	식대및 부식비	652,203
		통신·전화비	949,080
		사무기기	197,500
		복사비	385,880
		불심검문사업비	3,991,050
		기타	404,400
수입총액:	11,149,227원	지출총액:	17,659,463원
최종결산:	-2,225,576원		

<5월 자문 · 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 [Redacted] 운영위원님이 저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의 인세 약57만원을 후원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 ☐ 불심검문 캠페인과 관련한 사업비 수입, 지출 항목을 이달에 계산하였습니다. 사무실보수비는 5층 공간에 대한 공사비, 사무비품비의 경우 새 컴퓨터 2대의 구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계속 식대가 증가한 것은 자원봉사자, 방문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회비는 상근자들의 회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을 헛되지 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